

2014.6.2.(초안)/ 6.4(수정)/ 6.6(2차 수정)/ 8.14(3차 수정)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미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교과지식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법을 익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을 잘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다. 대학 진학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로지 정해진 답을 찾아 원하는 번호만을 고르는 훈련을 충실하게 받은 인간이 장차 삶 속에서 부딪힐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도리어 자동화되고 생각이 없는 인간이 되어 시대의 조류에 밀리고 밀려 어디엔가 표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결국 찾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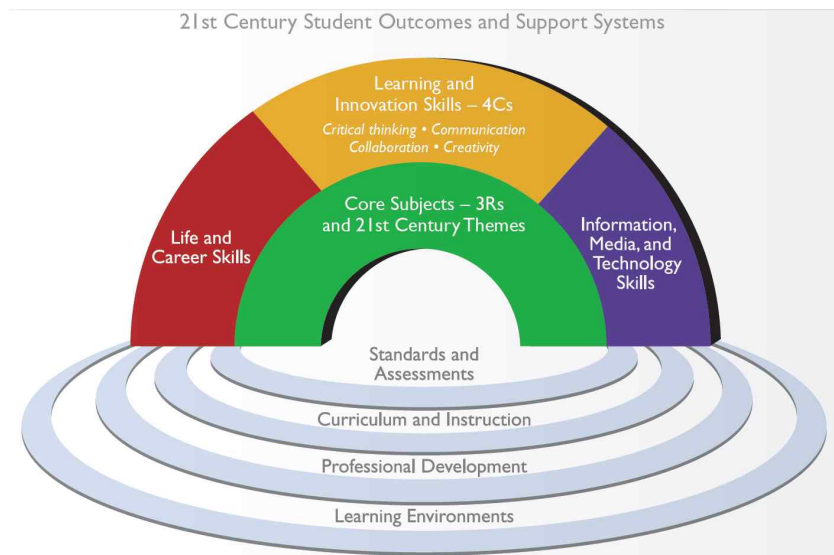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별무리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살려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첫째,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

둘째,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Creative / Critical thinking)

셋째,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Collaboration/Communication)

넷째, 탄탄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



출처: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1)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 앞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뇨? 우리를 선생 되게 하시고, 요리사가 되게 하시고, 과학자가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뇨?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신앙인조차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만,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어떤 것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다반사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육 속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따라 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진리를 성찰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기독교교육이 학생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는 화초와 같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사람이다. 거친 폭풍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거친 세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일 수 있다.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것은 온실 속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거친 세상에서 함몰되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물론 이런 능력은 오직 주께로 온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세상의 가치를 무작정 따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별무리 학교의 교육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것은 초·중 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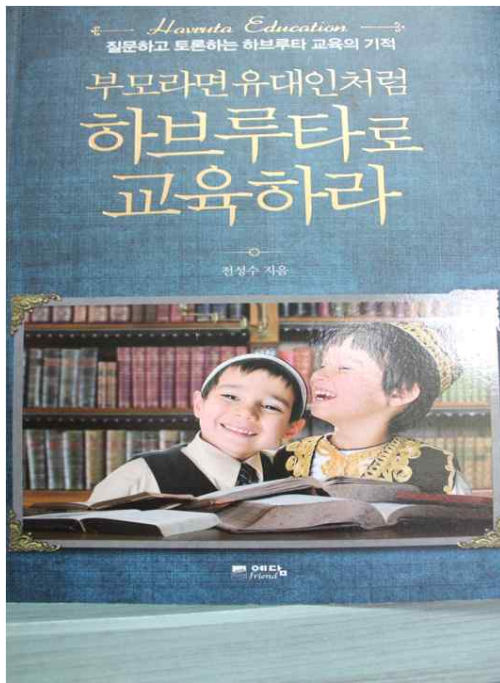
-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
- ☆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속에 이루어지는 삶
- ☆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
- ☆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림을 실천하는 삶

위의 삶들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별무리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진리를 추구하며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와 우리의 삶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식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학교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생을 확보하여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학교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다양하고 생기 넘치는 학생 개개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참된 배움이 일어날지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별무리학교 고등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자신만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친구와 짝을 지어 토론하여 설득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고등사고 능력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키우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고등사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별무리학교에서는 이중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토론하는 능력이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속에 들어 있는 의도와 그 말의 전제(세계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확하게 듣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전제(세계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토론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매우 우수한 교육 방법이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많은 책과 자료를 읽어야 하며,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엮어내기 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신장되는

것이다. 또한 토론은 세상과 소통하며 사는 태도를 기르게 해 줄 것이다.

본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거꾸로 교실』 또한 토론수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거꾸로 교실은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시간에 기본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강의나 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고등사고 능력을 신장해 가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고등 사고력의 출발점은 호기심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교사 주도의 주입식 교육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할 수 없다. 본교에서 『거꾸로 교실』과 『선택형 교육과정』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학생들이 배움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 진리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진리와 삶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면 배움이 일어난다.」는 전제는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가르친다고 해서 모두 배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마음이 없다면 교사가 아무리 수업 준비를 잘해도 배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할 때 참된 배움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효과도 가장 높다는 것이다.

『거꾸로 교실』의 개념은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여 배우고 익히며, 상호작용을 한 후에 자기만의 지식을 만든 후 수업시간에는 교사와 함께 고등사고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수업 시간에 배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계속 자극해 주었을 때 학생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 탐구해 가는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끼리 협력하여 공부하는 협력수업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해주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주게 되어 살아 있는 공부가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협력수업이나 본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 협력하여 공부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심리학이나 교육학 의학적 실험 등을 통해 검증이 끝난 상태다. 지금 제도권학교에서 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전통적인 교수법을 바꾸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별무리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 그리고 교사진이 계속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 발전시키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은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가게 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해 가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머리 속에 넣고 있다고 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리 속에 넣고 있느냐보다는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을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풀어내고 구현할 수 있느냐, 즉 창의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 시대이다.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야말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어야 하는 이유다. 교과서의 지식을 암기하게 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게 하여 점수만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무책임한 교육이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과 더불어 발전된 테크놀로지 분야의 접목도 필요하다. 보통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한다. 지금 IT 분야의 발전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정보를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재 발전하고 있는 IT 기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기기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구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3)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Collaboration/Communication)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환경적인 요소 중에

외형적으로는 교우들 이고 내면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성이다. 이 두 요소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거두게 배려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어야 한다.

앞에서 거론 한 하브루타식 토론, 거꾸로 교실의 실현 등은 모두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은 나만이 선점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세속적 가치관을 넘어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교우들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별무리의 고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장차 미래 사회에 나아가 사회 구성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별무리 고등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배운다. 조별학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 토론식 수업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논리적 근거를 준비한다. 에세이를 쓰는 훈련은 적어도 2 개 언어 이상으로 중등과정부터 훈련할 것이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사회에서 가장 핵심 역량으로 부각할 것이다.

4) 탄탄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

학생들이 가져야 할 실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실력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실력 있는 학생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성적이다. 성적도 실력의 한 부분이기에는 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독특한 은사나 미래의 인재상, 사고력과 창의력과 같은 중요한 교육적 본질조차도 몇 등이나는 등수에 모두 묻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나 성적과 실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실력은 자신이 맞닥뜨린 일이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적을 중시하는 교육은 문제풀이 식 교육, 암기 식 교육에 집중한다. 진정한 교육은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학교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교육 과정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나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스스로 고민 해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이고, 그러한 것을 찾은 학생은 대학이나 그 이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별무리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게는 5년, 적게는 2년간 별무리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교사들이 그 학생들의 은사와 진로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별무리학교의 큰 장점이다. 이 장점을 잘 살려 학교 철학의 큰 틀 안에서 학생 한명 한명에게 최적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별무리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이다. 이는 교과 교육 과정 뿐 아니라 방과 후의 특성화 교육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1) 학생 선택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은사와 적성을 일반 고등학교에서처럼 고2때 기계적으로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운영할 것이다. 특히, 영어와 수학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업 수준을 찾아가도록 도울 것이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문, 이과 선택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년 간의 교차 수강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별무리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에 오히려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교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학생 주도의 특성화 교육 과정

교과 수업 후에는 학생 주도의 특성화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때는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교과 교육의 틀 안에 다 담기 어려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특성화 교육 형태로 운영을 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학생 주도의 특성화 교육 활동이지만 필요시 별무리학교 교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학생들의 활동들이 풍성해 지도록 도울 것이다. 특성화 교육 활동은 매일 2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어 주당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활용할 수 있다. 특성화 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 특성화 교육

교과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 흥미 있거나 본인의 진로와 관련되어 보다 심화된 내용을 연구하고 싶을 때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교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연구를 도울 수 있다.

예) 과학 심화 특성화 교육, 해외유학준비 특성화 교육 등

② 예체능 특성화 교육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체능은 교과 수업보다 본인의 관심에 따라 학생 주도의 활동 중심이 될 것이다. 미술, 음악, 체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되, 이 중에서도 본인의 관심에 따라 개별

화 수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술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 시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채화, 유화 등을 배우고 그릴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는 밴드부와 오케스트라부 등을 조직하여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체육은 이 시간 뿐 아니라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예체능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 교사가 학생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고, 더 전문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학생 주도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면 학교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 특성화 교육

별무리 학교의 특성화 과정을 배우는 특성화 교육 활동이다. 본인의 은사와 진로에 따라 특성화 교육을 개설하고 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 융합과학/수학 반, 디베이트 반

④ 세계 시민 교육 활동

별무리학교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사항이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가장 낮은 곳을 섬길 줄 아는 행복한 보통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시민사회, 나아가 국가와 열방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배우게 할 것이다. 이 일은 별무리학교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교육 목적의 구현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 대 가치 중 살림과 소명의 실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국제 협력단(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COC, YGA 등과 함께 학생 교육 프로그램 및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외 대학의 국제 협력 혹은 국제 개발과 관련 있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꾸준한 활동과 정보 관리를 해줄 것이다.

예) 지역사회 프로젝트 학습, 적정기술, 해외 지원활동

⑤ 자율특성화 교육

학생의 은사와 취미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학술, 예체능 또는 학교 특성화 교육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특성화 교육의 종류는 위와 같지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모든 특성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한, 두 가지 특성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예체능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모든 시간을 본인의 진로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선택형 교과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은사와 적성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로를 찾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별무리학교는 도울 것이다.

3.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진학 지도

별무리학교는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진로와 어떤 형태의 진학을 선택하게 될지 매우 관심이 많다. 학교의 4대 가치 중 살림과 소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첫 시작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이 매우 크다. 학생들의 은사와 필요에 맞게 대학에 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12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별무리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진학도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진로와 관련을 갖고 고려되어야 한다. 진학은 학생의 꿈을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내대학 진학

우리나라엔 120여개 4년제 사립대, 37개의 4년제 국립대, 20개의 산업대, 146 여개의 전문대학 총 320 여개의 대학이 있다. 그 중엔 소위 명문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별무리학교는 대학진학이 학교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성장시키고 전공 영역으로의 성장을 원한다면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시도할 것이다.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도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과연 별무리학교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수시는 ‘모험’, 정시는 ‘보험’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수시는 누가 될지 모르니 자신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고 싶은 대학을 무조건 넣어보는 형태이다. 2015학년도는 1인당 6개의 수시 영역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 최종 합격하면 수능을 아무리 잘 보아도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수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모험’이다. 그렇게 선택한 대학의 수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남은 건 수능이다.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등급을 맞춰야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잘 봐야한다. 그런데 대부분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수능은 문과 이과 예체능 모두 각각 4개 과목(언어, 수학, 영어, 탐구)을 본다. 학교에 따라 제2외국어를 보는 학교 한국사가 필수인 학교들도 있다.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능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수능을 ‘보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수시 지원을 위한 내신 관리와 수능 고득점을 위한 모의고사 관리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숙된 말로 가량이 찢어질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 폭넓은 공부보다는 꼭 집어 배우는 족집게 식 공부를 해야 하고, 내신과 수능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식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지 못한다.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구체적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차근차근 해나갈지에 대한 그림은 그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별무리학교는 기독교학교이기를 소망하며 세워진 학교이다. 경쟁으로 몰아가는 학습구조,

성적 위주의 목적 없는 공부, 앞이 안 보이는 진학,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진로는 지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별무리학교는 그들이 힘겹게 가는 길이 옳고 바른 길이라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별무리학교의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대학은 그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공부의 시작이며 초석이다. 그렇다면 별무리학교는 국내대학 진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별무리학교는 현재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학생부를 제출하는 수시의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 2015학년도 평균 수시 선발률은 66%로 작년보다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정시보다 15%가량 많은 수를 뽑고 있다. 실제로 수능에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여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할지라도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별무리학교 학생들은 수시의 대부분을 지원하지 못한다.

① 논술 / 대안학교 / 특기자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

수시모집(정원 내 전형)				수시모집(정원 외 전형)	정시모집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일반 전형
일반 전형(738)	인문학인재계열(102) 사회과학인재계열(118) 과학공학인재계열(240) IT명품인재계열(21) 창의인재계열(20) 국제계열(394) 예능계열(26) 체능계열(47)	학생부교과 전형(257)	학교활동우수자(373) 사회공헌자(20) 다자녀(10) 사회배려자(20)	연세한미음학생추천(32) 연세한미음학생무추천(48) 농어촌학생(80) 특성화고교졸업자(24) 특수교육대상자(15 이내) 북한이탈주민(약간명)	일반 전형(892) (체능계열 포함) 예능계열(94)
738명	968명	257명	423명	199명	966명

※ 재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의 모집인원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함.

지난 번 대전에서 실시한 K대학교와 Y대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별무리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촉각을 곤두세워 들었지만 검정고시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가지고 논술전형을 지원하는 것 외엔 길이 없었다. 그리고 M대학교와 S대학교 H대학교 등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받아주는 학교를 포함해도 전체 수시 지원 가능성에 비하면 턱도 없이 좁은 문이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입학 전형을 자세히 분석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 전형을 크게 수시와 정시(수능)로 나누고 수시는 다시 일반전형, 특기자, 학생부로 나뉜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는 이 전형 중 학생부 관련 전형을 지원하지 못한다.

학생부는 교과내신만을 보는 교과전형과 학생부와 기타 종합적 가능성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전형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 19.04% 밖에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학생부는 단위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은 학생 문과의 경우 1.7% 우수자, 이과의 경우 2.0% 안팎의 우수아들만 해당되는 전형인 것이다. 우리 별무리학교가 만약 학력인가

를 받는다면 전교에서 문, 이과 각각 1명 정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일 뿐 이외의 아이들에게는 도리어 소외를 맛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 제도권학교에서도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교 5~6명 정도인 것이다. 별무리학교 학생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소위 논술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6%, 특기자전형은 전체 선발 인원의 27.1%, 정시(수능)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무려 전체 인원의 27.6%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별무리학교는 학생부를 포기하는 대신 75.3%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논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2013학년도 기준 5.8% 밖에 안 된다는 사실과 특기자 전형에 맞는 준비를 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이다.

모집시기, 전형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 인원	수시 ¹⁾	정시		인/사/과 /국/영	IT/ 창의 ²⁾			한마음 추천	한마음 무추천	농어촌 학생	특수 교육	특성 화고	보완이력 주인
문과대학	자유전공	사회	35	21	14	12	—	—	4	5	—	—	—	—	—	—
	국어국문학과*	인문	45	31	14	12	9	—	4	6	—	—	—	—	—	—
	중어중문학과*	인문	32	22	10	9	6	—	3	4	—	—	—	—	—	—
	영어영문학과*	인문	73	50	23	19	14	—	7	10	—	—	—	—	—	—
	독어독문학과*	인문	30	20	10	8	5	—	3	4	—	—	—	—	—	—
	불어불문학과*	인문	33	21	12	9	5	—	3	4	—	—	—	—	—	—
	노어노문학과*	인문	30	20	10	8	5	—	3	4	—	—	—	—	—	—
	사학과*	인문	45	29	16	12	7	○	4	6	—	—	—	—	—	—
	철학과*	인문	35	22	13	9	5	—	3	5	—	—	—	—	—	—
	문화정보학과*	인문	30	20	10	8	5	—	3	4	—	—	—	—	—	—
상경대학	심리학과*	인문	37	26	11	10	8	—	3	5	—	—	—	—	—	—
	경제학부	사회	177	112	65	47	24	—	17	24	—	—	—	—	—	—
경영대학	응용통계학과	사회	58	37	21	15	8	—	6	8	—	—	—	—	—	—
	경영학과	사회	274	179	95	73	45	—	24	37	○	○	○	○	○	○
	수학과*	자연	37	26	11	10	7	—	4	5	○	○	○	○	○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자연	33	23	10	9	6	—	4	4	○	○	○	○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도 그렇다. 경영대학의 경우 가장 잘 나간다는 경영학과에 274명의 전체 모집인원 중 정시, 일반전형(논술), 특기자전형을 모두 합하면 77.7%에 해당하는 213명에 해당한다. 반면 별무리학교가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부전형은 61명으로 22.3%에 해당한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권학교의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실제적으로 내신관리만 하는 학생은 수시 외엔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 허다하다. 그렇게 따지면 미인가로 인해 수시(학생부 전형)로 지원하지 못하는 핸디캡은 정시와 특별전형 그리고 일반(논술)전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명료함을 제공한다. 방향도 매우 좋다. 친구들과 내신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 보다는 서로의 향상을 도와주며 수학능력평가 혹은 논술을 준비하는 학업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게다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중학생 때부터 디베이트를 스포츠 즐기듯 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장차 수시 일반(논술)전형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능도 만찬가지이다. 이 대학의 경우 전형 중에 학생부는 참고조차 안한다. 피아노과는 자세한 전형을 봐야하지만 정시로 100%를 뽑는다.

모집시기, 전형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개별	모집인원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 인원	수시 ¹⁾	정시		인사/과 /국/외	IT/ 창의		학교	사배 ²⁾	한마음 추천	한마음 무추천	농어촌 학생	특수 교육	특성 화고	북한이탈 주민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예능	17	3	14	—	3	—	—	—	—	—	—	2	○	—	○
	성악과*	예능	25	10	15	—	10	—	—	—	—	—	—			—	
	피아노과*	예능	20	0	20	—	—	—	—	—	—	—	—			—	
	관현악과*	예능	39	13	26	—	13	—	—	—	—	—	—			—	
	작곡과*	예능	19	0	19	—	—	—	—	—	—	—	—			—	

게다가 별무리학교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면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각종 대회를 준비하여 참가하고 실적을 쌓을 수 있다. 공과 계통의 창의인재, IT인재 특기자 전형은 일반 제도권학생의 경우 특기자전형에서 각종 어학 자격증이나 교외 대회 실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반면 검정고시를 기준으로 전형을 진행하는 지원자의 경우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활동 사항(연구보고서, 개인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샘플, 발표된 논문, 개인 창작물, 창의적 활동 경력)들을 기록 제출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별무리학교의 장점인 것이다.

— 기타 서류 : 해외고 출신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와 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하여 최대 5가지 이내로 기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고 출신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해외고 재학 중 취득한 서류에 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취득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됨(단, 인문학인재계열, 사회과학인재계열, 과학공학인재계열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3가지를 포함하여 최대 5가지 이내의 기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국외대학 진학

학생의 은사에 따라, 혹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교수를 찾아 별무리학생들이 국외대학에 진학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진학할 때의 부푼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별무리학교 교육 연구소의 자체 분석 결과 몇몇 기독교대한학교들이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에 학생들이 입학한 사실만을 내세울 뿐 구체적으로 그 학생이 어떤 꿈을 꾸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고 실제로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지,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별무리학교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순탄하게 적응하고 학업을 단계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① 4년제 보다는 커뮤니티 컬리지, 가능하면 국비로

미국의 4년제 대학의 예를 들면 학비로만 연간 수 천 만원, 생활비 천 여 만원, 각종 체제비를 포함하면 부모가 대단한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학업을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주마다 설립되어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일단 학비가 국내 대학과 비슷하고 어학과정도 진행할 수 있고 교양과목들은 그 나라 4년제 대학 편입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 대학을 진학하여 국제교육진흥원 등을 통한 국비

유학 과정을 통해 국외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별무리학교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생활과 학업을 모두 관리한다. 사람에 따라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적게는 3년을 길게는 8년을 머물며 공부하게 된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는 멘토들은 한 학생의 특성과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르게는 초등과정 부터 축적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은사에 맞는 진로를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대학의 진학을 위해서는 전문 진학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생의 멘토가 해당자의 은사와 능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대학의 학과들을 소개하여 체계적으로 진학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무리학교와 MOU를 체결하거나 자매학교로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탐방 및 입학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별무리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예정하신 소명을 본 확신일 것이다. 대학진학은 별무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는 디딤돌일 뿐이다.

4. 별무리 고등학교 시간표 및 과목 개설 계획

	교과군	선택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총이 수시 간
국어	국 어	공통필수	6						
	국 나 어	공통필수		6					
	문 학1	공통필수			5				
	문 학2	공통필수				5			
	독 서 와 문법	공통필수					5		
	화 법 과 작문	공통필수						5	
수학	수학I	공통필수	4						
	수학II	공통필수		4					
	미적분I	공통필수			4				
	확률과 통계	공통필수				4			
	미적분II	자연필수				2	2		
	기하와 벡터	자연필수			2	2			
	심화수학(인문)	인문필수					3	2	

	심화수학(자연)	자연필수					3	3	
영어	영어10-가 A/B/C반	공통필수	4						
	영어10-나 A/B/C반	공통필수		4					
	영어11-가 A/B/C반	공통필수			4				
	영어11-나 A/B/C반	공통필수				4			
	영어12-가 A/B/C반	공통필수					4		
	영어12-나 A/B/C반	공통필수						4	
사회탐구	한국사	공통필수			3	3			
	한국지리	공통필수	3	3					
	세계지리	인문선택					3	3	
	세계사	인문선택					3	3	
과학탐구	과학철학	공통필수	3						
	생명과학1	공통필수		3	3				
	생명과학2	자연선택				3	3		
예술, 체육	체육	공통필수	1	1	1	1	1	1	
	음악	공통선택	2	2	2	2	2	2	
	미술	공통선택	2	2	2	2	2	2	
생활, 교양	중국어	공통필수	1	1	1	1	1	1	
	미디어	공통필수	1	1	1	1	1	1	
학교필수 (특성화)	세계관	공통필수	1	1	1	1	1	1	
	세계시민교육	공통필수	2	2	2	2	2	2	
	동아리		4	4	4	4	4	4	
	자치회		1	1	1	1	1	1	
			33	33	34	36	39	32	207

5. 별무리고등학교 시간표(예시)

10학년 1반 시간표							
<div>일</div> <div>시간</div>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아침활동 07:40~08:10	아침 활동						
아침식사 08:10~08:50	아침식사						
아침시간 09:00~09:30	아침묵상(기도/성경읽기/묵상/조례)						
1교시 09:40~10:30	국어	영어	국어	영어	국어	예배	
2교시 10:40~11:30	국어	영어	국어	영어	국어	자치회	주일
3교시 11:40~12:30	수학	미디어	수학	사회	과학	자치회	예배
점심/자유헌동 12:30~13:55				체육활동 (13:00~13:40)			
4교시 14:00~14:50	수학	체육	수학	사회	과학	체육활동	자유헌동
5교시 15:00~15:50	세계관	사회	제2외국어	과학	동아리 (격주)		
6~7교시 16:00~17:50	학교 특성화				또는 교과보충		
	1)미술, 음악	2)학술	3)YGA	4)자유헌			
저녁시간 18:00~18:50							
저녁활동1 19:00~19:50	저	녁	활	동	개별	개별	학습
저녁활동2 20:00~20:50					학습		
저녁활동3 21:00~21:50					철야예배 (자유헌)		
생활관 생활 22:00~23:00	생활관 생활 및 취침						

가. 교과 시간 배정(24시간)

- 1) 학교 특성화(예술 심화)의 영역으로 담당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미술과 음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 체육은 점심 자유헌동과 주말에 집중적으로 함.
- 2) 각 교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 3) 첫 몇 주는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각 영역으로 나누어져 활동(융합과학, 융합수학, 미디어, 환경생태 등)
- 4) 학생들의 취미 등을 고려한 자유헌 동아리 형태

- 국어(6), 수학(6), 영어(4), 사회(3), 과학(3), 제2외국어(1), 세계관(1) 미술, 음악(2), 체육(1), 미디어(1) ⇒ 24시간 거꾸로 수업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하루에 2~3과목 배치
- 기독교 세계관적 수업은 거꾸로 교실의 활동 시간에 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재구성이 가능함.
- 수학은 2수준, 영어는 3수준의 수준별 수업 진행 계획
- 문, 이과 교차 문제는 저녁활동 때 거꾸로 교실을 이용하여 교차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면 됨.

나. 아침시간: 청소년 생체리듬을 고려하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간표 적용

다. 아침묵상: 말씀과 함께 세상을 품는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

라. 점심시간과 이어서 자율 활동 시간 배치

- 운동장을 분리할 필요(아래 운동장을 고등이 쓰도록)

마. 저녁활동

- 1교시: 거꾸로 교실 등의 활용을 위한 강의 듣기
- 2교시: 배운 내용을 짝 토론 등을 통해 심화
- 3교시: 스스로 정리

바. 주말활동(2주에 1번 커가)-5주까지 있는 경우?

⇒ 1,3,5주 커가, 2,4주 주말활동 /

1) 숙소: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고교 기숙사 건립은 빠르면 2015년 하반기나 2016년 예정)

2) 주말체육활동:

① 언제 : 토요일 오후

② 내용: 기본적 체육활동 할 장소를 제공(배드민턴, 헬스, 탁구, 농구, 축구, 야구, 태권도 등 학생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추가 종목에 대하여는 개인 부담(승마, 골프, 수영 등)

③ 방법: 학교 버스로 해당 장소에 학생들을 내려 주고 활동 후 정해진 시간에 다시 픽업 -

3) 주일 예배: 별무리교회와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음.(1,2부로 나누어서)
⇒ 교회와 협의 후 결정(교회 가정은 집에서 식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먹는 방법)

4) 주말 동안 식사: 추가 조리실 인원 배치 필요

사. 양육 과정: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사람들만 헌신하여 양육 시간을 가짐

아. 기존 학생 승급 및 신입생 선발 기준 마련 필요

- 고등학교방향 및 철학에 대한 동의 과정이 필요(절차를 통하여)

-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한 캠프 개설 필요
- 9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9월26~27일)에서 학교의 방향을 철저히 전달(10월초까지는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9월 26일 저녁식사 후 9월 27일 오후까지/ 일반 입학 설명회는 27일 3시
- 진학을 희망하는 기존학부모님(2014학년도 기준 인도이동수업 참여 학생의 학부모님들)들에게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음

자. 별무리 고등학교 학생 대상 2015학년도 2월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